

# A2001 채권형(연금)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채권형(연금)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ABL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채권형(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18.07.01 ~ 2018.09.30	존속기간	추행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li> <li>•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li> </ul>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채권형(연금)	자산 총액 (A)	3,786	3,455	-8.75
	부채 총액 (B)	4	6	59.08
	순자산총액 (C=A-B)	3,782	3,449	-8.8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494	2,258	-9.46
	기준가격 (E=C/D×1000)	1,516.85	1,527.63	0.7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국내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기 지표 부진이 지속되었음에도, 7월 금융위에서 이일형 위원의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등으로 시장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8월 들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 증대,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 가능성 등으로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9월은 이낙연 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과 미중 무역 분쟁 및 신중국 금융 불안 우려감 완화로 위험자산이 선호되며 8월 금리 하락 폭을 일부 되돌리며 마감하였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의 경우 단기물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감 및 분기말 단기 수급 꼬임 등으로 금리 하락이 제한되는 반면 장기 금리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경우 7월 캐리 수요 유입, 8월 일부 대형기관 크레딧 펀드 집행 등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되었으나, 분기말을 앞두고 단기 수급 악화 등으로 단기 여전채를 중심으로 스프레드 소폭 확대되며 마감 하였습니다. 펀드는 2018년 3분기 동안 0.8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0.25% 인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지표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금융불균형 누

적,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되더라도 현재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 시장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12월 한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채권형(연금)	0.71	1.16	1.28	0.8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2)	(-0.64)	(-1.03)	(-1.38)
비교지수(벤치마크)	0.93	1.80	2.31	2.21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통화안정증권 채권지수 (1년 이하) 10%, 국고채지수 (4~5년) 30%, 은행채 (1~2년) 10%, 회사채(AA-이상 (1~2년) 5%, 지방채(4~5년) 10%, 특수채 (1~3년) 30%, 유동성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채권형(연금)	0.83	-0.28	1.10	7.79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8)	(-2.83)	(-4.08)	(-6.98)
비교지수(벤치마크)	2.21	2.55	5.18	14.77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통화안정증권 채권지수 (1년 이하) 10%, 국고채지수 (4~5년) 30%, 은행채 (1~2년) 10%, 회사채(AA-이상 (1~2년) 5%, 지방채(4~5년) 10%, 특수채 (1~3년) 30%, 유동성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0	25	0	0	0	0	0	0	2	-10	16
당기	0	35	0	0	0	0	0	0	1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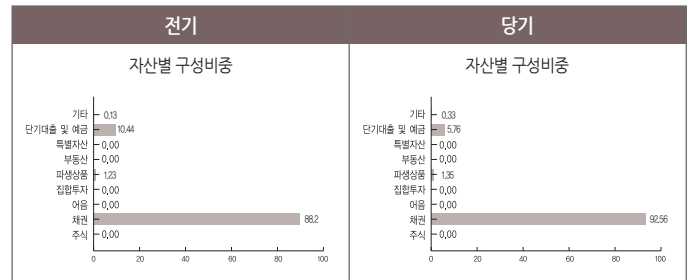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KRW (1.00)	0 (0.00)	3,198 (92.56)	0 (0.00)	0 (0.00)	47 (1.35)	0 (0.00)	0 (0.00)	0 (0.00)	199 (5.76)	12 (0.33)	3,455 (100.00)
합계	0	3,198	0	0	47	0	0	0	199	12	3,455

※ ( ) : 구성비중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375-2303(18-1)	6	채권	경기지역개발13-12	4.77
2	채권	통안0160-1904-02	7	채권	토지주택채권(토지수익연계채권)42	3.84
3	채권	농금채2012-02017Y-K	8	채권	인천지역개발15-04	2.48
4	채권	국고02000-2009(15-4)	9	단기	증거금(NH선물)	1.35
5	단기	CMA(신한금융투자)	10	단기	은대(우리은행)	0.58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375-2303(18-1)	2,090	2,110	대한민국	KRW	2018-03-10	2023-03-10		N/A	61.08
통안1160-1904-02	300	301	대한민국	KRW	2017-04-02	2019-04-02		N/A	8.71
농금채2012-02이7Y-K	200	203	대한민국	KRW	2012-02-16	2019-02-16		AAA	5.87
국고02000-2009(15-4)	200	200	대한민국	KRW	2015-09-10	2020-09-10		N/A	5.80
경기지역개발13-12	150	165	대한민국	KRW	2013-12-31	2018-12-31		N/A	4.77
토지구획채권(토지구획연계채권)42	114	133	대한민국	KRW	2010-08-27	2020-08-27		AAA	3.84
인천지역개발15-04	80	86	대한민국	KRW	2015-04-30	2020-04-30		N/A	2.4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CMA	신한금융투자	2018-09-28	179	1.40	2018-10-01	대한민국	KRW
증거금	NH선물		47	0.00		대한민국	KRW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0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사장	51	76	2,305,168	-	-	2111000044
차인식	차장	50	76	2,305,168	-	-	2118000653
이하경	과장	34	76	2,305,168	-	-	211800065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로 오탈자 수정 요청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1.01.15 ~ 현재	이현구
2018.05.29 ~ 현재	차인식
2018.05.29 ~ 현재	이하경
2018.01.15 ~ 2018.05.28	정우진
2009.02.04 ~ 2018.01.12	남정은
2012.11.05 ~ 2016.04.22	오인철

## 5. 비용 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2	1	0.02	
판매회사	4	0.10	4	0.10	
펀드재산물관리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4	0.12	4	0.12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907	0.0002	0.4909
당기	0.4894	0.0002	0.489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채권형(연금)'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선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 3호 및 제4호)